2022년 / 11월 4주차

연구원 소식

53차 문화강좌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연구원 문화강좌가 다시 대면 강좌로 회원과 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22년 12월 10일(토) 16시 30분 ~ 18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제목: <한국영화가 낳은 여배우의 향기와 전망>
강사: 이정욱(영화감독)
대상: 회원 및 시민

장소 관계상 스물 다섯분 내외만 모실 수 있으니 참석하실 분들의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화 강좌 뒤 2022년 송년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맑은 영혼의 위장결혼식 -1979. 11. 24

10・26사건으로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직후 국민들은 유신의 그림자까지 걷어치우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복귀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민의를 수렴해 개헌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신의 수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방식 그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노라는 반공화주의(反共和主義)적 발상을 공식화함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남극의 빙수를 끼얹는다.

이에 함석헌, 윤보선, 백기완 등 재야인사를 비롯한 민주화운동세력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규탄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유신헌법 폐지, 양심수 석방 등을 골자로 한 문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로 결정한다. 가두시위는 계엄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이 예상되어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한 시위를 계획하였다. 엄혹한 유신의 그림자가 여전히 쨍쨍했던 그 때, 신랑을 하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가 홍성엽이었다. 그는 1973년 연세대 사학과에 입학하여 학내 역사연구모임인 '동곳회'에 가입, 유신반대 운동을 펼치다 1974년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복학생이었다. 신부는 윤정민. 그러나 신부는 이름만 있는 가상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소천한 윤형중 신부에게서 성을 따고 18년간 '군정'의 통치를 받은 이들의 꿈인 민정(民政)을 살짝 비튼 이름이었다.

신랑입장의 사회자 구호에 맞춰 홍성엽이 입장하자 축혼행진곡 대신 민주 회복을 위한 선언문이 우렁차게 낭송되었다.

"18년 장기독재에 결연히 저항해 온 민주회복 투쟁이 그 최종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 서서 오늘 우리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선(先) 대통령 선출, 후(後) 개헌'이라는 기만적인 정치일정을 내걸고 유신독재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는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고 민권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전 국민적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통일주체국민회의 대선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함성 소리가 장내에 그득했지만 그 기세는 곧바로 난폭한 진압에 스러지고 만다. 함석헌과 윤보선을 미행하던 경찰들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의자를 내던지며 결혼식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다. 계엄 시대였으니 계엄군도 합세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방조하여 집회를 성사시킨 후 때려잡았다는 설까지 있었던 신군부의 보안사는 악마처럼 사람들의 손톱을 뽑고 콧구멍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전기로 지졌고 몽둥이로 찜질을 한 뒤 '내란음모죄'로 엮어 감옥에 넣어 버렸다.

신랑이었던 홍성엽이야 말할 것이 없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받은 고통의 수십배는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이 고문 때문에 그는 이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맑은 영혼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며 신군부의 추악함을 소리없이 폭로한다. **"고문당한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것은 군(軍)의 체면을 위해 그만두겠다."**

그는 계속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7년 백기완 민중후보 선거운동본부 일을 끝으로 운동을 접었다고 한다. 그가 민주화운동과 결별한 1988년은 직선제 헌법에 의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해였다. 비록 가짜 신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반려자인 윤정민, 즉 민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진정 자신이 살고 싶던 삶으로 복귀함으로써 상상의 신부인 민주주의와 달콤한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동학(東學)에 심취해 도인(道人)같은 삶을 살던 그에게 백혈병이 찾아왔고 그는 오랜 투병 끝에 2005년 사망했다. 위장결혼식 이후 그는 진짜 신부를 맞이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후덕하고 듬직하게 생긴 한 청년은 그 결혼식의 '정민', 즉 민정을 위해 수절했던 것일까.

(학민사에서 2006년에 출판된 홍성엽 유고집, "맑은영혼"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허락 없이 빌려온 것에 대신하여 이 가을 책 한권 보시함으로 용서를 구합니다)